



대한민국 스포츠의 근본적 변화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체육시민연대와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2022년 4월, 하늘에 별이 된 김포FC 유소년
축구 U-18팀 정우림 선수의 명복을 빕니다.
우리는 잊지 않겠습니다.

체육시민연대 뉴스레터

2024년도 제10호

남자선배 4명이 전지훈련 중 예비고등학교 1학년 3명을 상대로 성폭행

대구체고 선배들이 수영부 후배 성폭력...가해자 부모 "장난친 것"

박상혁 머니투데이 기자

'장애인체전 2관왕' 고교생 아산서 극단 선택 추정

"교내서 부당한 일" 숨진 장애인체육 유망주, 사망배경 본격 조사

변재훈 뉴시스 기자

#의정단상#장애인스포츠

지역사회의 사회적 책임과 장애인스포츠

윤수봉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김현수 칼럼

선량한 구별주의자

김현수 전 국가인권위원회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장

한국배구연맹(KOVO)

'후배 괴롭힘 의혹→1년 자격정지' 오지영, 징계 재심 대신 소송 제기할 듯

윤승재 일간스포츠 기자

#임금체불#사회초년생#청주_수영장

200만원 월급을 쪼개기 지금...항의하자 "할 테면 해봐"

천재상 연합뉴스 기자

기사 모아보기

주간 스포츠 소식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효령로 230. 승정빌딩 407. TEL 02-2279-8999

<https://www.sportscm.org/>

대구체고 선배들이 수영부 후배 성폭력... 가해자 부모 "장난친 것" **대야 해요**

대구의 한 고등학교 수영부에서 남자 선배 4명이 전지훈련 중 예비 고등학교 1학년 3명을 상대로 성폭행한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들의 진술이 공개됐다.

지난 4일 JTBC 뉴스 '이상엽의 부글터뷰'에 따르면 지난 2월 대구체육고등학교 수영부가 제주도에서 전지훈련을 하는 과정에서 2학년 선배 3명과 3학년 선배 1명이 예비 고등학생 1학년 3명을 상대로 성폭행을 가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선배 학생들은 1학년 선배들을 눕혀 항문이 보이도록 엉덩이를 벌리게 하고 얼굴을 가까이 대개 하거나 자기 성기를 보여주며 "어떻게 생겼냐?", "말로 표현해라"라고 하는 등 부당한 요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선배들은 1학년 학생들이 예비 1학년 학생들의 얼굴을 잡게 하고는 일어나서 "먹어봐", "한번 빨아볼래" 등 요구를 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전지훈련이 끝난 뒤 학교로 복귀해서도 성폭행은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보도에 따르면 선배 학생들은 피해자들에게 "여자친구와 성관계하는 것을 영상통화로 찍어오든가 녹음해오라" 등 요구를 했고 이를 거부하면 딱밤 50대를 때리겠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외에도 옷을 입은 채로 피해자들의 얼굴에 성기를 갖다 대거나 옆으로 누우라고 하고는 성행위를 하는 등 피해를 준 것으로 보도됐다.

JTBC 보도에 따르면 선배 학생의 부모는 "후배에게 장난쳤다는 이유만으로 벌을 받으면 이미 졸업한 선배들도 모두 감옥에 가야 한다", "가해자로 지목된 아이들은 억울한 부분이 많고 서로 주장이 엇갈린다" 등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교내서 부당한 일" 숨진 장애인체육 유망주, 사망배경 본격 조사

전국 장애인체전 금메달리스트인 고등학생이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경찰과 교육 당국이 본격 조사에 나섰다.

8일 전남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전남 진도군 한 야산에서 고등학생 A군이 숨진 채 발견됐다.

A군은 지적 장애가 있었지만 체육 특기생으로 도내 한 특수학교에 재학 중이었다. 전국 장애인체전에서는 2관왕에 오르며 장래가 유망한 학생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발견 당시 범죄 연루 정황이 없고 A군이 이동식 저장 매체에 심정을 밝히는 글을 남긴 점을 토대로, 극단적 선택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A군이 남긴 A4 6쪽 분량의 글에는 학교에서 겪은 일들이 열거돼 있으며 '부당하다'는 취지의 표현이 담겼다고 경찰은 전했다.

다른 누군가를 지칭하는 내용은 없고 대체로 자신이 겪은 일에 대한 소회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체육 특기생인 A군이 운동 등에 대해 언급한 바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학교 폭력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우선 교직원·또래 학생들을 상대로 숨진 A군이 글에 남긴 주장의 사실 관계를 파악한다. A군이 주장한 '부당한 일'에 연루된 이들이 확인되면 법리에 따라 처벌할 수 있는지도 검토한다.

전남교육청도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함께 조만간 A군의 학교에서 학생 전수 조사를 벌인다.

경찰 관계자는 "A군이 남긴 글을 분석한 결과 조사가 필요한 교직원·학생들이 다수 있다. 일단 자초지종을 파악하는 대로 엄정 수사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지역사회의 사회적 책임과 장애인스포츠

올해는 올림픽이 열리는 해이다. 7월이면 각국의 대표선수들이 프랑스 파리에 모여 최선을 다해 경기를 펼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올림픽 출전은 모든 선수의 꿈이지만 동시에 한 개인을 넘어 출전 국가와 온 국민, 선수의 고향, 그리고 지역주민의 자랑스러운 희망이라고 할 수 있다.

스포츠 경기에 출전하는 선수들의 작은 시작은 학교에서, 또는 지역 스포츠클럽에서 비롯되었을 것이다. 어찌 되었든 그 시작은 지역에서부터다. 비단 선수가 되지 않더라도 체육, 즉 체육 정책이 발달한 지역의 주민들은 건강과 여가, 두 가지 측면에서 삶의 만족도와 지역 애착도가 높다고 한다.

전문성의 차이에서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을 분류한다면 장애 유무에 따라 장애인체육과 비장애인체육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장애인선수들 역시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성장한다. 차이가 있다면 장애인의 대부분이 중도장애인 즉 성인이 된 이후에 장애를 갖게 된 경우가 많으므로 선수 육성 역시 학교에서의 장애인체육보다는 생활체육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 특히 장애인의 삶에 있어 스포츠는 더 큰 의미가 있다. 비장애인과 달리 직업으로써 운동선수가 되는 것, 실업팀 소속으로 선수생활을 한다는 것은 장애인들에게 또 다른 차원의 의미다.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다’라는 말이 있듯이 장애인선수들에게 실업팀은 생계유지와 사회적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그야말로 최고의 복지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스포츠는 장애로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해 주고 고된 훈련과 연습을 통해 장애의 한계를 뛰어넘는 경험은 물론 달콤한 성취도 맛보게 해준다. 지역사회가 장애인체육에 더 많은 관심을 두고 적극적으로 실업팀 육성에 힘을 쏟아야 하는 이유다.

전북에는 유일하게 단 하나의 장애인체육 실업팀이 있다. 장수군 장애인체육회 소속의 탁구팀이다.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다. 다른 지역을 찾아봤더니 우리 지역이 전국에서 꼴찌였다. 전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 최소 4종목 이상의 장애인체육 실업팀을 가지고 있었으며 최소 1종목 이상은 도 체육회 소속 실업팀이었다. 우리 도는 단 하나뿐인 실업팀조차도 도 체육회가 아닌 상대적으로 열악한 군 체육회에서 창단했다는 것에 두 번 실망할 수밖에 없다.

전북의 장애인선수들은 소속팀 없이 오로지 홀로 어렵게 생계를 유지하며 운동을 이어가고 있다. 아니면 전북을 떠나 상대적으로 실업팀이 많은 다른 지역으로 연고를 옮기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 지역사회의 무관심으로 지역의 좋은 선수들을 놓치고 있는 셈이다.

뜻만 있다면 전북특별자치도와 시. 군, 도 체육회와 시. 군 체육회 등 도내 공공기관은 물론 국민연금공단, 전북개발공사 등 전북 내 공기업들, 그리고 하림 등 지역 민간기업의 후원으로 언제든지 장애인체육실업팀을 창단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성숙한 사회일수록 지역사회의 사회적 책임이 일반적인 인식으로 자리 잡고 있다. 사회적 책임이란 공공, 민간의 구분 없이 환경, 윤리, 인권적 측면에서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과 사익이 아닌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책임 있는 활동을 말한다. 지역의 기관과 기업들이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할 때만이 더 나은 지역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

전북특별자치도 원년을 맞아 지역사회를 구성하는 지역의 기관과 기업들이 전북자치도 장애인체육 실업팀 창단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적극 실천해 주기를 기대한다.

[김현수 칼럼] 선량한 구별주의자

선량한 마음만으로는 평등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회학자 김지혜의 책 “선량한 차별주의자”는 보통의 사람들이 미처 차별을 포착하지 못하고 선량한 차별주의자가 되고 마는 이유에 대해 각자가 처한 위치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선량한 차별주의자들이 득세하는 세상에서 평등을 이뤄내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익숙함을 넘어서는 상상이라고 말한다.

그녀의 진단처럼 다소 선량한 차별의 출발점에 서서, 사회적으로 성공한 이들을 바라보면 자신의 특별한 위치를 갖기 위한 노력은 물론이고, 그 외에도 배경, 행운 등 많은 요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성공적인 경험과 신념에만 근거해 사회 현상에 대해 진단하고, 자신의 생각이 곧 상식인 것으로 착각하는 모습을 종종 본다. 진정 상식적인 사람들은 알아듣지도 못할 이야기를, 그들은 여전히 잘살고 있는 자신의 내면 한구석에 집중하면서, ‘선량함’을 내뿜고 있는 것이다.

많은 경우 스포츠 선수들의 결실은 자아실현과 같은 공동선에 관련된 것이라기보다 승리, 순위, 돈, 유명세 등과 같은 가시적인 성취물을 통해 드러나기 마련이다. 물론 이런 성과들을 통해 자아가 실현되었다는 사람들도 있으나, 주변의 인정은 주로 이런 실질적인 내용들로 채워진다. 스포츠에 이런 성과를 가진 사람들은 극히 소수에 불과하지만, 이들의 성과는 실로 널리 퍼지기 마련이라, 많은 국민들의 관심 속에서 마치 흔한 일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그러다보니 유명 선수들의 언행은 곧 상식적인 것처럼 들리기도 하고, 새겨들을 만한 명언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한다.

하지만 이들의 화려한 이면에 자리한 한국 스포츠의 본모습은 오랜 기간 엘리트 스포츠 시스템에 의한 부작용으로 몸살을 앓아왔다. 이른바 승리지상주의로 불리는 한국 스포츠의 국가적 지향점은 스포츠로 국위를 선양하겠다는 국가주의적 목표로 경도되면서 ‘모두를 위한 스포츠’라는 보편타당한 본래 목적을 상실하고 말았고, 부수적으로 폭력, 성폭력, 학습권 박탈, 혹사, 사생활 침해 등 무수한 문제를 드러냈다. 이런 일이 거의 반세기 넘게 벌어졌지만 주기적으로 터져 나오는 스포츠 스타들의 메달 소식 뒤편으로 언제 그랬냐는 듯이 묻히기 일쑤였다.

특히 그들의 성장 과정이기도 한 학교운동부의 학생선수는 1972년 체육특기자 제도가 도입된 이후 공부는 차치하고, 운동에만 ‘올인’하는 것을 인정하는 정부의 비교육적 행태의 결과로 ‘운동부=학업결손’이라는 이상한 등식을 만들어냈다. 하지만 학업을 아예 안하더라도 성과만 나오면 모든 것이 용서되는 이상한(?) 평가체계가 만연하게 되면서 이런 부조리한 관행은 더욱 공고하게 자리잡았다.

물론 우려도 없지는 않았다. 과거에는 학생운동선수들은 수학능력의 상실을 우려했고, 최근에는 학령인구의 급감과 수업결손 등으로 인한 운동부 기피 현상 등으로 한 종목의 소멸을 걱정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상황이 이렇게 극단으로 치달아도 정부 당국은 ‘학업결손을 더 이상 안된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해결책은 내놓지 못했고, 이런 문제들을 줄여나갈 최소한의 장치, 즉 최저학력제와 출석인정결석 허용일수와 같은 미봉책으로 버텼다. 하지만 이마저도 선거철을 맞아 또 수난을 당하고 있다.

최근 각자의 종목에서 세계적인 명성을 쌓은 두 메달리스트 정치인들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최고를 위해 극소수를 살리고, 다수를 포기하자고 서슴없이 말하고 있어서 걱정이다. 그들은 “장기간에 이뤄지는 올림픽 선수 선발전에서 학생선수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열어주기 위해서는 최저학력제, 출석일수 인정 등을 더 유연하게 풀어줄 필요가 있다”거나 “학생선수의 직업 관련 현장체험을 실습 및 출석으로 인정하면서 최저학력제로 인한 차별 문제를 해결하면 출석 인정·결석일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하면서 최저학력제와 출석인정 결석허용일수를 무력화하는데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사실상 그 기준이 너무도 낮아 잘 걸리지도 않는 최저학력제와 학교에 거의 안 가도 되는 출석인정 결석허용일수지만 이마저도 못마땅한 것이다.

과거 한국 사회의 스포츠가 성과를 내던 방식, 다시 말해 빈약한 저변에서 소수 엘리트 선수를 선발하여 학습권을 박탈하고 혹사를 시키는 비정상적인 엘리트 스포츠 시스템에서 성장한 이들이어서일까? 그들의 인식은 만인이 소외되지 않고, 보편적인 문화로 즐겨야 할 스포츠를 마치 자신의 경험과 같이 행해야만 지속될 것처럼 오해하고 있는 것 같다. 어쩌면 그 달콤한 성과를 위한 대다수의 희생은 나약한 개인의 책임일 뿐 스포츠의 본모습은 아닌 것으로 여기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운동부라는 섬에 갇혀 지낸 자신들에게만 익숙한 방식을 넘어서는 상상이 아쉬운 대목이다. 누군가를 차별하는 선량한 차별주의자가 아닌, 반대로 누군가로부터 우리만 특별하게 봐달라는 그들의 이 선량한 ‘구별주의’는 결코 인권적이지도 않고, 스포츠가 지향하는 본모습도 아니다. 비록 사명감 넘치는 체육인들의 선량한 의도라 하더라도 그 결과가 본인의 선량한 의도에 미치지 못할 것이 자명하다면 주변도 돌아보고, 반성도 해보고, 침묵하는 것도 방법이다.

김현수 전 국가인권위원회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장

자료 출처: <https://www.newsmin.co.kr/news/100090/>

'후배 괴롭힘 의혹'→1년 자격정지 징계 오지영, 징계 재심 대신 소송 제기할 듯

후배 괴롭힘 의혹으로 한국배구연맹(KOVO)로부터 1년 자격정지 징계를 받은 오지영이 재심 신청 대신 바로 법적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오지영의 법률대리인은 5일 "오지영이 KOVO에 재심을 청구하는 데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 바로 소송을 제기하는 쪽으로 고민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한국배구연맹은 지난달 27일 2차 상벌위원회에서 오지영 선수의 팀 동료에 대한 괴롭힘, 폭언 등 인권침해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해 1년 자격정지 징계를 확정했다. 당시 상벌위는 "이 같은 행위들은 중대한 반사회적 행위이며 앞으로 프로스포츠에서 척결되어야 할 악습이므로, 다시는 유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재하기로 했다"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오지영 측의 의견은 달랐다. 오지영 측 법률대리인은 당시 "우리의 소명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 추가로 제출할 수 있는 자료도 있다"며 "재심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후배 A 선수는 평소에도 각별한 사이였고, B 선수와는 접점이 크게 없었다고 주장했다.

오지영 측은 KOVO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으나 재심 대신 소송 제기로 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오지영의 법률대리인은 "오지영 선수가 지난달 23일에 1차 상벌위에 출석했고, 26일에 법률대리인을 선임해 27일 2차 상벌위에 나섰다. 자료를 꽤 많이 들고 갔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시간은 30분 정도였다"라면서 "제출한 자료가 충분히 검토됐는지 의문이고, 추가로 소명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는데도 거절당했다. 이런 상황에서 재심은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라고 전했다.

오지영은 KOVO 상벌위의 징계 처분과 페퍼저축은행의 계약 해지를 무효화 하는 소송을 진행할 전망이다. 페퍼저축은행 구단은 지난달 27일 상벌위의 결정이 내려진 직후 오지영과 계약을 해지한 바 있다.

200만원 월급을 쪼개기 지급... 항의하자 "할 테면 해봐"

[앵커]

충북 청주의 한 수영장에서 신입 직원들 월급을 특별한 이유 없이 미루고 소액으로 쪼개서 지급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 수영장은 이미 또 다른 임금체불 신고 등으로 노동당국 조사를 받고 있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천재상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지난해 청주의 한 사설수영장에서 강사로 일한 20대 A씨는 월급날 통장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통장에는 받기로 한 월급 200여만 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70여만 원만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A씨가 따져물자 수영장 측은 '나중에 주겠다'고 했습니다.

< A씨 / 전 수영장 직원 > "(월급)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 3주 정도 대답이 없으셨어요. 계속 그런 일이 (일하는 동안) 한 몇 달 내내 이어진 거 같아요."

마지막 급여는 넉달가량 밀린 뒤, 그마저도 절반만 들어왔습니다. 신고하겠다고 항의해봤지만, "할 테면 해보라"는 냉담한 반응만 되돌아왔습니다.

< A씨 / 전 수영장 직원 > "신고를 하면 자기는 돈 안 주고 그냥 (감옥에) 들어갔다가 나오면 된다, 이런 식으로 나오시니까 저는 (돈을) 못 받을 줄 알고..."

같은 수영장에서 일했던 다른 20대 직원들도 뚜렷한 설명 없이 월급이 밀렸습니다. 월급 200만원이 2주가 넘게 밀렸고, 그마저도 50만원과 150만원으로 나눠서 받은 직원도 있었습니다.

< B씨 / 전 수영장 직원 > "(노동지청에 신고해보려고도 했지만) 계약서를 제가 쓰지도 않고 그냥 주민등록번호만 불러달라고 해서 계약서가 지금 진짜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상태고..."

수영장 측은 이 같은 의혹에 대해 문자 메시지를 통해 "임금을 체불한 사실이 없다"며 제보자 신원을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반론 취재를 위한 기자의 접촉 요청에는 응하지 않았습니다.

해당 업장은 아시안게임 모 스포츠 종목의 국제심판 등으로 일하는 체육계 인사가 운영하던 곳으로, 지금은 그의 가족이 경영 중입니다.

연합뉴스TV 취재 결과, 이 수영장은 이미 또 다른 임금체불과 퇴직금 미지급 등 두 건의 신고로 관할 노동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합뉴스TV 천재상입니다. genius@yna.co.kr

주간 스포츠 소식

[인천소식] 인천도시공사, 검단신도시에 다목적 체육관 건립

<https://www.yna.co.kr/view/AKR20240306099600065?input=1195m>

대한하키협회 이상현 회장, 체육회 스포츠가치 우수상 수상

<https://www.yna.co.kr/view/AKR20240304046900007?input=1195m>

제주도, 스포츠 인권 친화 도시 조성 나선다

<https://www.joynews24.com/view/1694281>

‘골프, 축구에 이제는 야구까지?’ 사우디의 오일 머니, 야구도 집어삼키나...프로야구 3팀 만든다

https://sports.khan.co.kr/sports/sk_index.html?art_id=202403061140013&sec_id=510301&pt=nv

세종장애인체육 선수들, 안정적 체육활동 기반 다져

<https://daily.hankooki.com/news/articleView.html?idxno=1060398>

의령군, 동부국민체육센터 개관

<https://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905810>

24시간 무인헬스장서 운동하던 여성 숨져...경찰 조사

<https://view.asiae.co.kr/article/2024030713401517808>

완도군, 전남 생활체육 대축전 등 3개 체육 행사 준비 돌입

<https://www.metroseoul.co.kr/article/20240309500003>

강원도·교육청·도의회·체육회, 장애인 동계체전 업무 협약

<https://www.yna.co.kr/view/AKR20240307141800062?input=1195m>

체육시민연대 온라인 정기 후원 안내

‘귀하를 체육시민연대 회원으로 모십니다’

체육시민연대는 우리사회 변화를 위해 실천합니다.

스포츠 인권과 평화, 공정하고 투명한 스포츠문화를 함께 만들어 갑니다.

***후원:국민은행 086601-04-095940, 체육시민연대**

체육시민연대는 기부금대상 비영리민간단체로

시민들의 후원에 의해 운영됩니다.

(연말 기부금영수증발급)

온라인 정기 후원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